

## 국토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권용우<sup>1</sup> · 손정렬<sup>2</sup> · 황철수<sup>3</sup> · 이재준<sup>4</sup> · 변병설<sup>5</sup> · 이자원<sup>6</sup> · 이승철<sup>7</sup> · 남선애<sup>8</sup>

### Study on the Policies of the National Land Education

Yongwoo Kwon<sup>1</sup> · Jungyul Sohn<sup>2</sup> · Chulsue Hwang<sup>3</sup> · Jaejoon Lee<sup>4</sup> ·

Byungseol Byun<sup>5</sup> · Jawon Lee<sup>6</sup> · Sungchul Lee<sup>7</sup> · Sunae Nam<sup>8</sup>

**요약** : 본 연구는 국토교육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하나는 국토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다.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지향하려면 지리과목을 핵심과목으로 독립시켜 지리교과를 통해 국토교육을 수행해야만 강대국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토관련 시민교육의 확충이다. 시민교육의 확충은 시민들에게 학교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교육하고 나아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국토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여 교육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교육을 통한 국토교육은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첫째는 국토시민대학의 창설이다. 둘째는 국토교육 이벤트사업의 조정 관리다. 국토해양부 후원 하에 국토교육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토교육이벤트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국토교육 관련 서적의 출판과 포털사이트 운영이다.

**주요어** : 국토교육, 학교교육, 시민교육, 국토시민대학, 국토교육협의회

**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two kinds of policies to strengthen the national land education in Korea. One is the substantiality of school education on the national land. Korea should take the national land education by the way of teaching the national and worldwide geography in schools, so that Korea can get to the place of advanced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England, and the USA. The other is the strengheness of citizens education on the national land. We can have the thorough knowledge of the natinal land by the three metho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itizens University of the National Land, the arrangement of various national land events, and the book publication and portal site management of the national land.

**Key Words** : national land, school education, citizens education, Citizens University of the National Land, Korea Council on National Land Education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1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ykwon@sungshin.ac.kr
- 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jsohn@snu.ac.kr
- 3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hee University), hcs@khu.ac.kr
- 4 협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Hyupsung University), jilee@uhs.ac.kr
- 5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Inha University), byun@inha.ac.kr
- 6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jw1109@sungshin.ac.kr
- 7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esc@dongguk.edu
- 8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ae630@sungshin.ac.kr

## 1. 서론

1997년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경제 분야 관련자들이 '경제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교육 운동을 벌여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009년에는 아예 경제교육지원법을 만들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sup> 환경 분야도 환경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 동해 등의 국토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해외자원 확보,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세계관련 쟁점이 부각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토와 세계지역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는 지리 분야는 독자적인 논리를 제시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대체로 자연현상과 재해, 도시, 농촌, 경제활동, 토지이용, 교통, 해양, 국내의 지역연구 등 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지리학의 연구대상인 점은 기원 전후부터 오늘날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지리학의 전통이다. 곧 지리학은 국토와 세계지역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현재 중등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교과로 국토와 세계지역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의 경우, 지리학을 통한 국토교육을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국토문제를 다룰 때 지리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연유로 국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리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연구의 핵심인 지리학의 위상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연유로 국토문제에 관한 여러 정책 연구들이 지리학 이외 국토관련 연구단체에 집중되고 지리학 분야에서는 극히 소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의 핵심이 지리학"이라는 인식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토교육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국토교육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공간개념에 대한 교육을, 국토에 관한 여타 어느 분야보다도 지리학이 더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문제제기

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강대국<sup>2)</sup>과 우리나라의 국토교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땅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국토교육"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육과 관련된 선진 강대국의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육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육 관련활동을 학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이외의 국가기관, 민간부분 등의 순서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토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을하기로 한다.

## 2. 다른 나라의 국토교육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토에 대한 인식과 국토교육에 관한 내용면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체계적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패러다임을 정립한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sup>3)</sup> 이들 나라는 공히 지리교과를 통한 국토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육과 지리교육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논리를 전개하기로 한다.

### 1) 독일

독일에서는 1800년대에 근대적 의미로 땅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된다.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자연적 측면을, 리터(Karl Ritter)는 인문적 요소를 강조해 국토와 세계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논리를 세운다. 라첼은 환경결정론을, 리히트호펜은 연구방법론을, 팡크는 지형학을, 헤트너는 지역론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국토교육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든다(Hartshorne, 1939; Johnson, 1997; Kwon and Ahn 2009).

한편 17세기에 시작한 국토교육(Vaterlandkunde)은 19세기 중반 경에 본격화된 향토교육(Heimatkunde)

으로 이어진다. 특히 독일은 1870년의 보불전쟁의 승리에서 地理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토학문으로서의 지리학을 크게 강조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독 분단 상황이 나타나자 독일은 국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된다.<sup>4)</sup>

독일에서 국토교육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지리학 관련단체이다. 독일 지리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Geographie)가 상위의 가장 큰 모(母) 협회고, 그 산하에 여러 분과학회가 있다. 이중 독일 대학지리학 및 지리교육학회(Hochschulverband für Geographie und Didaktik)와 독일 지리교육자학회(Verband Deutscher Schulgeographen e.V.) 등이 국토 및 지리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전자는 이론과 방법론 연구에, 후자는 주로 학교 현장에서 국토지리에 관한 교육 및 실무에 관한 논리를 제공한다.

독일지리협회는 지리교육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국토 및 지리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역량과 평가목표, 그리고 평가방향을 제시한다. 이 표준지침은 국토 및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교사들의 교육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리교육 표준지침에서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지리적 역량으로, 전문지식, 인식방법, 의사소통, 판단 및 평가, 공간적 지향, 행동 등 6가지 요소를 제안한다.

독일의 국토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지리교과(Erdkunde)를 통해 국토와 세계지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 및 지리교과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13년 동안 나선형 교육과정 체계(Spiralcurriculums)에 따라 점진적으로 심화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향토와 국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allgemeine Weltkunde)과 이해를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교육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저학년 단계의 국토교육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사실중심과 학생중심 원리에 입각한다.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지리교육은 '무엇이 어디에?', '왜 거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점차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된다. 곧 단

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확충함으로써, 체계적 조직적으로 학생 스스로 국토와 세계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이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향토 공간, 학생들이 속한 지역, 독일, 그리고 유럽과 세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때 지역과 아울러 주제 영역을 체계적으로 결합시킨다.

독일의 지리과목은 향토, 지역사회, 주 등의 각 단위 지역과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나 현안 이슈 내지 시사적 주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와 유럽 연합 나아가 세계 여러 지역과 독일의 관련성을 폭넓게 설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독일과 세계지역을 동시에 파악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일 지리교육에서의 접근방법은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양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지역연구의 측면을 보면, 첫째로 지역 단위의 선택에서는 향토 공간, 향토지역, 국가, 거주대륙, 여타 대륙 및 공간구분, 세계, 지구적 구조 등을 다룬다. 둘째로 선택 원리에서는 분권주의, 동기, 축적의 변화, 다양성, 적합성, 책임성 등을 취급한다. 주제연구의 측면을 보면, 첫째로 계통적 접근방법에서는 자연지리, 인문지리를 공부한다. 둘째로 문제 지향적 접근방법에서는 환경의 질, 사회경제적 격차, 자연재해, 기후변동, 인구성장, 도시화, 세계의 기아, 에너지 관리, 인종·성·종교 등에서의 불평등, 성장의 한계, 사회·경제·자연적 위기지역, 발전문제와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학습한다. 셋째로 시스템 이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자연시스템, 사회시스템, 생태시스템을 다룬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정규과정의 학교교육을 통해 지리교과를 이수한 사람은 국토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도 응용 가능한 지식을 갖게 된다. 나아가 독일과 주변 국가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토관련문제와 연계시켜 학습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일이 세계 중심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깨달아, 국토와 세계에 관한 총체적 지식을 갖게 된다.

## 2) 프랑스

프랑스의 국토교육은 지리학의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870년 독일에 패한 보불전쟁은 프랑스로

하여금 땅에 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국가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 무렵 '땅과 결부된 생활양식(genre de vie)을 연구하는 것이 지리학의 본질'임을 주장한 비달 드 라블라슈(Vidal de la Blache)가 등장하여 프랑스 국토연구의 큰 패러다임을 만든다. 프랑스 지리학 개척자인 비달 드 라블라슈는 프랑스의 지리적 위치와 여건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프랑스인들에게 국토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그 전통이 오늘에 이른다.

프랑스의 국토는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 피레네와 알프스 사이, 리옹만과 북해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전제이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문화의 교차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유럽인들의 삶의 맥박은 프랑스로 전달되어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이런 유럽의 문화적 뒷받침 없이는 프랑스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거꾸로 풀이하면 프랑스가 유럽 문화의 중심일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프랑스 국토의 축은 대륙을 향해 뻗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교류가 빈번한 4개 바다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외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가 없이 함께 모여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갖춘 국가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 이후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국토에 관한 지식이 세계에 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프랑스는 세계화 시대에 이른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프랑스 국토는 물론 전 세계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리교과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는 프랑스의 국토와 세계지역교육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국토와 세계지역에 관한 교육은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국립지리원(Institut géographique national),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 내무, 국토, 지방자치부(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등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1821년에 창설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랑스 지리학회(Societe de Géographie)가 지리학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지리협회에서는 지도제작과 연구를 진행한다.<sup>5)</sup>

프랑스의 경우도 학교에서의 국토교육이 지리교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국토교육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수행되며, 그 후에는 대학의 전공과 교양과목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지리학과 역사학을 통합하여 역사지리 교과로 가르치며 교사도 동일하다. 그러나 역사와 지리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각각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필수교과이다.<sup>6)</sup>

프랑스의 국토에 관한 교육은 특히 중학교(collège)와 고등학교(Lycée)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학교에서는 유럽과 주요 국가들을 다룬 후, 프랑스가 자연환경과 문화적 다양성 위에 설립된 국가임을 강조하며, 국토를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나눠 각 지역단위에 관해 자세하게 학습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토공간의 변화를 역사적 맥락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 동안의 경제성장과 정책이 국토공간상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경제·농업·산업의 분포와 3차 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달에 관해 상세하게 배운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오늘날 유럽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화 정도, 그리고 세계 속에서 프랑스가 점유하는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랑스가 세계의 핵심적인 중심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이과 지리교과를 보면, 첫째로 국가와 지역으로 구성된 유럽 편에서는 유럽이란 무엇인가?, 유럽의 국가구성과 유럽연합, 프랑스의 지역 혹은 다른 국가의 지역 등을 학습한다. 둘째로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네트워크와 흐름 편에서는 도시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네트워크, 인구의 이동 등을 공부한다. 셋째로 프랑스와 국토: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 편에서는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경제적 공간, 지역적 불균형과 국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유럽이란 지역이 수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지고 있는 내용을 공부한다. 이어서 지도 등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국토와 세계지역과의 관계, 국토정책을 수행하면서 드러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맥락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것(le fait régional)의 함의가 국토와 세계지역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관한 철학적 패러다임도 생각해 보게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정규과정의 학교교육을 통해 지리교과를 이수한 사람은 프랑스 국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된다. 나아가 프랑스와 세계 여러 국가들과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프랑스가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 핵심적인 중심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총체적 인식을 갖게 된다.

### 3) 영국

영국은 1830년에 창설된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를 주축으로 지리상 탐험과 해외지역 개척에 큰 성과를 낸다.<sup>7)</sup> 그러나 1880년경 영국의 지리학은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학문적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리교육학회에 해당하는 지리협회(GA: Geographical Association)는 1893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국토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사들이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시행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가가 교육내용을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국토교육은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의 양 측면에서 전개된다.

영국 학교교육에서의 국토교육도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지리교과의 틀 안에서 전개된다. 영국에서는 국토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배양한다는 대명제 아래 국토관, 국토정책, 국토계획 등의 내용을 국토교육 안에 포함시켜 교육한다. 영국의 국토교육도 국토와 관련된 시사적이고 응용 가능한 이슈들을 상당히

밀도 있게 다루어 실생활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나아가 인접국가와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련성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연계교육방법을 실시해, 세계화 국제화 사회에서의 국토와 영토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정립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리협회는 교사 및 지리와 국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및 캠페인 등을 벌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 지리협회와 지리 전공자의 노력으로 지리교과는 영국 10대 기초교과로 선정되었으며 그 후 내용을 보완해 개정되었다.<sup>8)</sup>

영국은 지구 온난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 국토와 세계지역에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토와 세계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Young Geographers 프로젝트는 일상생활에서 국토에 관한 개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 정체성을 수립하고, 지도활용법이나 환경문제 등을 지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Planet Sport 프로젝트는 경제발전, 관광 등과 같은 국토주제나 올림픽, 패럴림픽 같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엮어 지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낸다. 예를 들어 2008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하여 베이징의 지역성이나 문화, 환경,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알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Geography of Disease 프로젝트는 세계화 시대에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이해하고, 지리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질병 극복을 위해 여하히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학습시킨다. Building Sustainable Communities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지리적 사고와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건설하려면 어떤 행동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다양한 곳에서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영국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국토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시민강좌 내지 워크숍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국토에 관한 사회교육은 대체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국토관련 시민교육의 한 예로 <도시개발대학>을 들 수 있다. 동 대학의 교육목표는 전문가 교육 및 공공과 민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2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대학>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과 민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게 한다. 교육과정은 초반교육, 현장실무, 전문가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국토관련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영국 도시재생협회의 <도시재생 훈련 프로그램>도 있다.

#### 4) 미국

미국의 국토교육도 대체로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국토교육의 주도기관이 다르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국토관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된다. 국토에 대한 학교교육은 지리교과에서 주로 다루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은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담당하여 일종의 기능적 업무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국토교육은 국토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엮어 나가고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토대로 내용을 전개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들의 국토교육 활동은 국토와 관련된 최신의 이슈들을 시민강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전개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미국의 국토교육은 국토관, 국토정책, 국토계획 등 국토이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망라함으로써 국토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리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국토교육은 미국 지리교육공동위원회(American 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다.<sup>9)</sup> 지리교육공동위원회는 미국의 국토문제와 세계지역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미국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y)와 함께 지리교육과정과

지침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국토교육과 관계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리교육지침서(Guideline for Geographic Education)는 국토에서의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해 5대 근본주제로 입지, 장소, 장소 내의 관계, 이동, 지역 등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국토관련 교육교재개발은 글로벌 이슈에 관한 지리학적 탐구(GIGI: Geographic Inquiry into Global Issues) 프로젝트와 미국 지리에 관한 활동과 연구(ARGUS: Activities and Readings on the Geography of the United States)가 대표적이다. GIGI는 세계지역에 대한 내용이, ARGUS는 미국 국토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져 있다. 특히 ARGUS는 미국의 국토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 경제적 지역화, 정치적 조직, 환경문제 등 4개의 주요부분을 포함하여, 미국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여러 논리를 제시한다.

한편 미국도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와 같이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국토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에서는 아동자신을 알게 한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가정과 학교를, 2학년에서는 이웃을, 3학년에서는 지역사회를, 4학년에서는 주·국가·세계를, 5학년에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6학년에서는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를 다루는 세계지리를 배운다. 이러한 점진적 단계적 국토교육을 통해 국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점차 넓혀, 다양한 국제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미국의 국토 위치와 의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국토의 주 또는 지방 지리와 세계지리를 중심으로 지역지리학을 강조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계 속에서 미국이 점유하는 국토의 의미를 알게 하여 미국이 세계중심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한다.

고등학교 지리 프로젝트(HSGP: High School Geography Project)는 미국의 국토교육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고 있다. HSGP는 최신의 지리학과 국토 이론과 주요개념들을 소개하여 국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HSGP는 고등학교 지리 프로젝트의 국토 관련 이슈 부분을 도시와 농촌, 문화 및 주거 등 국토

에 대한 여러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단원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원 도시 지리에서는 도시의 성장, New Orleans, 도시의 형상과 구조, Portsville, 도시의 규모와 범위, 특수도시기능, Bruges, 시간-거리, 도시로의 이주, Megalopolis 등을 학습한다. 2단원 제조업과 농업에서는 제조업의 지리적 패턴, 제조업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입지, 산업입지의 지리적 사례, 기아, 농업분야, 농부와의 인터뷰, 농업게임, 세계를 위한 충분한 식량 등을 공부한다. 3단원 문화지리에서는 축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스포츠에 관한 학습, 이슬람의 팽창, 캐나다: 지역적 질문, 문화의 변화: 동일성지향 경향 등을 배운다. 4단원 주거와 자원에서는 주거와 인간, 2개의 하천, Watchung, 금홍석과 해변, 홍수와 재해, 물수지의 균형, 쓰레기 관리 등을 학습한다.

국토관련 사회교육은 미국 도시계획학회(APA: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등에서 진행한다. 미국 도시계획학회는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획하기 위한 리더십 배양과 시민교육 및 도시계획에 관한 논문발표, 자료구축, 법안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Tuesday at AP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및 농촌계획이나 지역발전전략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고 의견을 교환한다.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하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강연 자료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과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Resources Zine』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커뮤니티 계획이나 환경보호, 도시디자인, 참여, 지리학, GIS 등에 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국토관련 사회교육으로 특히 <지역사회개발 아카데미>가 활발하다. 본 교육에서는 지역커뮤니티 개발 및 지역리더 육성을 목표로 한다. 미주리 州정부의 약 60개 타운(towns)에서 1,000명 이상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토론수업방식에 의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기간 및 일정은 '풀뿌리 지역사회 만들기'의 프로그램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지역주민, 도시계획 실무자 등이다. 교육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환경계획, 스마트성장 등이다. 또한 커리큘럼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 강화를 위한 방법', '지역사회와 마을단위의 역량 증진', '전체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 역량 강

화', '전체 커뮤니티 개발' 등을 교육한다. 이와 같이 선진강대국의 국토교육을 분석 정리해 보면, 국토교육이 지리교과를 통한 학교교육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시민교육을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3. 우리나라의 국토교육 분석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교육은 학교, 국토해양부와 기타 국가기관, 그리고 민간부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1)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국토교육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공간 활동에 대한 지리적 인식에 관해 설명한다.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토관련 교과내용은 ① 지리정보 활용과 국토 인식 ②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개발 ③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의 관계 ④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⑤ 지역개발과 사회적 갈등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기가 사는 고장의 전형적인 장소와 경관을 이해하여 간단한 형태의 그림지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적 특성을 지형, 기후 등의 측면에서, 국토의 인문적 특성을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국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중학교에서는 도시와 촌락, 인구변화, 교통문제, 산업화, 주거문제, 광역화 등 국토문제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측면을 다양하게 다루어 국토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국토문제를 다룬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국토관을 함양해, 국토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구조의 변화과정과 복합적인 국토공간의 특성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 국토에서 전개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지역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갈등문제와 자원개발,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토 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을 설명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세 및 교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분단된 국토의 통일이 가지는 당위성을 정립하도록 한다. 또한 독도, 간도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변 국가와 관련된 영역 갈등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국토관련 교육은 ① 우리 국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족 ② 국토관련 교과서 교과내용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미비 ③ 지리정보 활용 부족 ④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개발논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한다.

특히 선진 강대국의 사례에서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을 국토사랑의 철학, 국토개발의 역사, 자연 환경과의 조화된 국토개발, 세계 속에서 한국이 점유하는 위상과 역할 등이 현행 국토관련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sup>10)</sup>

## 2) 국토해양부와 기타 국가 기관

국토해양부는 홈페이지 안에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해 일반 국민들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해양 전반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관련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국토해양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2009년에 <국토교육협의회>를 창설하여 국민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국토교육을 준비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은 국토정책, 주택 및 토지, 건

설수자원, 해양 정책, 물류 및 항만, 교통정책, 항공 및 철도, 정보화, 사이버 등의 분야를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어린이 그림지도 그리기대회,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전국 초·중·고교에 교육 자료로 세계지도 배포, 공간영상정보구축 전문 인력 교육, 지도박물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세계측지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박물관을 설립해 토지 문화를 알리고, 토지박물관 대학을 운영해 다양한 토지관련 강의와 답사로 지역민들에게 토지 문화 체험을 제공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 국토정보 경시대회를 실시해 우리국토를 사랑하는 국토사랑운동을 폈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도시 관련 전문박물관을 열어 주거문화와 도시역사를 조명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2004년에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도시운동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도시대학 시민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사이버 지적역사관과 어린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한국 도로공사도 어린이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전시관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궁금한 점을 알려주고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이버 물박물관,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물 사랑 작품전시회 개최, 물 사랑 블로그 경진대회, 물 사랑 공모전, 인터넷 물 상식 퀴즈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전개한다. 한국철도공단은 고속철도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어린이 청소년 홈페이지 운영, 바다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홍보관 견학 실시 등의 이벤트를 실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 아카데미를 운영해 해양 수산 정책의 의미를 알렸다.

국토해양부가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여 시행하는 해양교육 지정학교가 있다. 여기에서는 1년 내지 2년간 해양교육 시범학교로서 교육활동을 해 청소년들에게 해양의식을 고취시켰다. 시·도 단위의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립 문제청소년수련관은 나라사랑도보 체험을, 서울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은 독도기행을 실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국토교육 시범학교가 있다. 국토교육 지정 학교에서는 교과 및 체험 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국토사랑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고,



우리국토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국토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양지중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충북 단양공업고등학교, 충북 충주중학교, 충남 연서중학교 등에서 국토지리학회가 개발한 『우리 국토』 교재와 국토사랑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국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국토교육 활동 외에 충남 홍성 서해삼육초등학교의 국토 대청결운동, 서울시 예일여중의 서로랑 잔디 밟기 국토보존 운동, 서울시 신양 중학교·서울시 화랑 초등학교·대구시 달성중학교 등에서 실시한 학교 숲 가꾸기 이벤트 등도 있다.

### 3) 민간 부문

민간부문에서는 국토관련 시민교육, 국토교육 관련 이벤트 사업, 그리고 환경관련 교육협회의 내용을 고찰할 수 있다.

#### (1) 국토관련 시민교육

국내에서 시행되는 시민대상의 국토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경실련 도시대학, 경기 도시대학, 수도권 도시대학, 권역별 도시대학, 좋은 동네 시민대학 등이 있다.

경실련 도시대학은 도시에 대한 이해와 도시운동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5회 가량 진행되었다. 강의자는 교수, 연구원, 시의원 및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체 실무자 등 다양하다. 교육은 1회당 약 55인이 참석하며, 그 대상은 시민단체, 업계, 공무원, 학생 등으로 폭이 넓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강의, 워크숍, 세미나, 미니토론, 현장탐사 등으로 이루어진다.<sup>11)</sup>

경기 도시대학은 2005년부터 시행한 현장 중심의 국토교육 프로그램이다. 화성 고정리 농촌 특성화지역, 안산 광덕로 지역, 남양주 해질 모루십리길 조성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이나 주말교육을 통해 국토의 이론과 실재를 교육한다.

수도권 도시대학은 2008년에 8주간 매주 토요일 일

정으로, 인천 부평구 비타민 가로 만들기 외 5개 대상 지역에 대해 교육을 시행했고, 2009년에도 8주간 매주 토요일 일정으로, 군포 신기천 문화 물길 조성계획 외 6개 대상지역에 관해 교육을 진행했다.

권역별 도시대학은 2008년에 7주간 매주 토요일 일정으로,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국토교육을 시행했다. 2009년에도 8주간 매주 토요일 일정으로,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국토교육을 진행했다.

좋은 동네 시민대학은 광주 YMCA를 중심으로 지역 변화를 추진하는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토론수업 교육프로그램이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총 9회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토론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된다.

#### (2) 국토교육 관련 이벤트 사업

국토교육 관련 중요 이벤트 사업에는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 국토관련 교재출판과 포털사이트 운영, 어린이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바다사랑 글짓기 대회 등이 있다.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는 대한지리학회와 전국지리교사연합회가 주최한다. 2000년 이후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최대 이벤트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대회 참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국토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매년 4천 여 명이 참가해 2010년까지 4만 여 명에 이르는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회원들은 우리나라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토사랑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sup>12)</sup>

국토관련 교재출판과 포털사이트 운영은 국토지리학회에서 활발히 전개한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국토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도시 바로알기』 교재를 편찬하여 도시에 관한 올바른 관

점을 정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사랑 포털사이트(landlove.kr)를 운영해 지속가능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국토관리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Kwon and Byun, 2008; Kwon *et al.*, 2005; Kwon *et al.*, 2007; Kwon *et al.*, 2010).

어린이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국토를 잘 보존하며 가꾸야 함을 일깨워 주는 이 대회는 산과 강, 그리고 바다 등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글, 기행문, 체험기 등을 자유 형식으로 응모케 하여 평가 시상한다.

바다사랑 글짓기 대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후원하고 해양경찰청이 주최한다. 바다사랑 글짓기 대회는 초·중·고교 재학생들이 바다를 체험한 느낌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탐구심을 키우고 바다에 대한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행사이다.

그리고 한국 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은 자전거로 국토횡단 답사를 실시하고, 한국청소년탐험연맹에서는 국토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창교육원에서는 평창교육가족 국토순례를 실시했다.

### (3) 환경교육 관련협회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②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③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규정 ⑤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된다. 학교환경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에 의해 진행되거나 특별활동을 통한 동아리활동이 주를 이룬다. 사회환경교육은 시민환경단체나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교육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 이후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

오르던 시기와 일치한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구, 산업화와 도시화, 자원, 환경오염, 환경대책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환경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의 범주가 다양하다. 그리고 폭넓은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감정을 고취시키고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다. 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경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환경교육은 1990년대부터 전문환경단체, 일반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된 단체들이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단체들이 환경교육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사회환경운동을 추진하는 중요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방위교육, 시민강좌 등을 통해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환경교육단체는 한국환경교육협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그린패밀리 그린스카우트 연합, 무지개세상 등이 있다. 한국환경교육협회는 1981년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회>로 설립되어 운영해 온 후 1991년 <한국환경교육협회>로 명칭을 개칭했다. 1993년부터는 환경관련 자료실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화했다. 환경캠프, 환경독후감 공모 사업, 환경교육 장학사업,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협력센터 운영, 환경관련 단체들과의 공동사업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는 단체와 개인을 연결하는 국가 수준의 포괄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열린 조직으로서 2005년에 창립해 활동하고 있다. 그린패밀리 그린스카우트 연합(Green Family Green Scout)은 1994년에 발족해 유아 때부터 환경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환경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97년 전국 213개 학교에 녹색소년단(Green Scout)을 결성해 교사 및 학생들에게 환경이론과 현장 체험적인 교육으로 환경의식을 높이고 있다. 무지개세상(Eco-Rainbow)은 1993년에 결

성되어, 청소년 환경보호 실천 및 온라인 환경기자 육성사업과 국내 하천 항공감시단을 운영하며 자연생태의 아름다움을 영상물로 제작, 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 4. 결어: 국토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본 연구에서 국토교육은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과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육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토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이다. 사례분석 결과 여러 선진 강대국은 국토지리와 세계지리 교과와 학교교육을 통해 국토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강대국을 지향하려면 국토지리와 세계지리 교과를 핵심적인 독립과목으로 만들어 국토교육을 실시해야만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 국토영역, 배타적 경제수역, 하천과 환경관리,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 등은 국토지리 교과에서, 세계화 시대의 해외시장과 세계 지역 파악으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은 세계지리 교과에서 다루어야 한다.

국토교육이 핵심인 지리교과가 독립과목이 되려면, 교육과정 편제 및 생활기록부 상에 '지리'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교과서에 '지리' 과목명이 단독 표기되어야 하며, 국민공통교육과정 상에서 '지리' 시수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토관련 시민교육의 확충이다. 시민교육을 통한 국토교육은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토시민대학 창설이다. 국토시민대학은 보통시민이 참여하여 국토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존의 경실련 도시대학, 경기 도시대학, 수도권 도시대학, 권역별 도시대학 등의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국토시민대학의 전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시민대학에서는 상향식 주민참여를 위해 국토에 관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국토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스스로

국토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 국토시민대학에서는 국토와 세계지역과의 관계까지도 폭넓게 교육하여 세계화시대에서의 국토역할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토시민대학은 국토이해 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와 갈등관리 및 주민전문가 양성 차원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이해 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형 국토시민대학은 지역별 마을 만들기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지자체 국토시민대학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갈등관리 및 주민전문가 양성형 국토시민대학은 국토해양부가 감독하고,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교육협의회가 주관해 추진하면서, 법정계획으로 승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및 각 공사 등이 후원할 수 있다.

둘째는 국토 이벤트사업의 조정 관리다. 국토해양부 후원 하에 국토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벤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은 어린이 글짓기 대회, 대한지리학회는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글짓기 대회, 국토지리학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토올림피아드 대회, 그리고 기타 국토해양부 관련 여러 산하 조직에서 시행하는 국토교육 관련 이벤트 사업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국토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국토교육 관련서적의 출판과 포털사이트 운영이다. 국토와 해양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균형적 시각 함양,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체계 형성, 경제 인프라 확충, 세계지역 관리와 에너지 대처 문제 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국토관련 교재는 계속적으로 출판되어야 한다. 기존 발간 교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행 국토 관련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시각과 내용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 관련 포털사이트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국토정보를 지역별, 테마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국토관련 포털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국토에 대한 자발적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어 국토관련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국토 사랑의 기회가 확충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토관련 여러 포털사이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토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국토지리와 세계지리 교과를 통해 국토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인들에게 학교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가르치며 나아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국토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선진강대국의 국토교육 수준에 이를 필요가 있다.

## 사사

본 연구는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우리국토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개발”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신 사단법인 국토교육협의회 홍철 이사장과, 2009년도 당시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제1차관, 한만희 주택도시실장, 강팔문 국토정책국장, 윤성원 국토정책과장께 감사드린다. 연구자문을 해 준 정환영 교수(공주대), 안영진 교수(전남대), 이수진 님(佛, 소르본느 대학 박사과정)께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본 논문을 검토해 준 유근배 교수(서울대)께 고마움을 전한다.

## 주

- 1) 2009년에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교육의 주관은 경제교육협의회(KCEE: Kore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가 담당하고, 지역별 교육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제교육협의회는 2006년 4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민간부문의 18개 경제교육 관련기관이 공동 설립한 경제교육협의체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교육협의회 참여기관 간 정보 및 자료를 공유

하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실행한다. 그리고 경제교육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64건, 중학교 교과서 87건, 고등학교 교과서 295건 등 총 446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제 교육 정립화를 시도한 바 있다. 경제관련 교재개발, 국내외 연수 등도 실시했다.

-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선진강대국은 “지리상의 발견 이후 지리학적 지식을 기초로 여러 국가적 역량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에서 힘 있는 나라에 이른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3) 2000년 이후 해외 국토교육과 관련하여, 박선미, 2001, “지리교육과정의 국제 비교,” 지리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와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1-5; 장영진, 2003, “영국의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 그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38(4); 이태주·김다원, 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2) 등의 연구가 확인된다.
- 4) 독일은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Grundgesetz)에 따라 연방공화국이 된 이후,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한과 업무 분담이 명확해졌다. 이에 독일의 교육관련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이자 결정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16개 주(State)로 구성된 독일은 주에 따라 교과내용과 교육지침에 차이가 있다.
- 5) 프랑스 국립지리협회는 프랑스에서 지도제작과 지리학연구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이다. 지상·항공 측량과 지도가 전문 연구 분야이며 협회는 파리에 있다. 공학자와 지리학자로 구성된 동 협회는 프랑스 측지 및 삼각측량지도를 만들었으며, 루이 18세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최초로 프랑스 전도를 만들었다. 1794년 종합기술학회가 된 이후 1887년에는 군 지리국과 군 역사국으로 분리되었다. 군 지리국은 1940년에 국립지리협회로 바뀌었으며, 1967년에는 국가 설립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 협회의 도서관에는 100만 본 이상의 지도와 5만 권 이상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국립지리학회(Ecole National des Sciences Géographique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 측량을 위해 소규모 비행단을 가지고 있다.
- 6) 박선미, 2001, “지리교육과정의 국제 비교,” 지리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와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1-5, p.5.
- 7) 왕립지리협회는 1821년에 설립된 파리지리학회(Paris Geographical Society)와 1828년의 베를린지리학회(Berlin Geographical Society) 다음으로 역사가 길다. 설립 당시는 런던지리학회(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였으나, 1859년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에게 공식 허가장(Royal charter)을 받아 왕립지리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33년 일부 회원들이 영국지리학회(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1995년에 이들과 재통합하여 새로운 왕립지리학회(the new Royal Geographical Society, RGS)가 출범하였다. 3년 임기의 2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가 학회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100여 개 나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地理人이 지리학 연구, 교육, 훈련 등과 관련된 학회 행사나 활동을 전개한다.

- 8) 영국의 지리교과가 10대 기초교과로 선정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1970년-교육개발 프로젝트 시작 ② 1976년-캘러한 총리가 교육논쟁 촉발, 교육과정에 정부개입 의지파력, 대처정부에 의해 강화 ③ 1980년-교육과학부가 지리과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 GA의 답변, 교육과학부 방문 ④ 1981년-교육과학부가 책자를 통해 지리과목의 주변적 역할을 지적, GA의 답변 ⑤ 1985년-교육과학부장관 조세프, GA연설에서 지리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내용선정에 문제제기 GA의 답변 ⑥ 1987년-GA는 『A Case for Geography』 책자를 통해 지리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내용선정 원리를 체계화 ⑦ 1987년-지리과목의 선택 여부 불투명, GA, 교육과학부 장관 케네스 베이커와 면담 ⑧ 1988년-교육개혁법 제정, 지리과목 10대 기초교과로 선정 ⑨ 1990년대-실용주의적(utilitarian) 관점에 기초한 지리교과 내용을 구성(출처: 장영진, 2003, “영국의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 그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38(4), 644쪽의 표 5와 본문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 9) 미국은 미합중국을 수립할 당시 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연방주의적 성격이 계승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개별 과목의 표준기준이나 교육지침 등은 교육공동위원회와 같은 단체가 주도한다.
- 10) 우리나라에서의 지리교육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목에 통합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사회교과 안에 지정되어 있고, 2, 3학년의 경우 선택과목이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되어 있다. 더욱이 2014년 대입 수능과목 개편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2과목을 공부하여 지리 1과목으로 묶어 시험 보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국토교육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11) 권용우는 1996년에서 2003년까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대표를 역임하면서 경실련 도시대학을 창설하고 운영한 바 있다.
- 12) 2010년의 제11회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는 대한지리학회,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대한지리학회와 전국지리교사연합회가 주관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를 대표해서 권도엽 제1차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시상함으로써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가 국가행사로 시행되

었다(대한지리학회보, 2010, 106호, pp.5-10).

## 참고문헌

- Gregory, D., Johnston, R., Pratt, G., Watts, M., and Whatmore, S., 2009,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AG.
- Jang, J., 2003, The Establishment of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and its effect in England,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8(4), 640-656(in Korean).
- Johnson, D. L., Haarmann, V., Johnson, M. L., and Clawson, D. L., 2009, *World Regional Geography*, 10th ed., Prentice-Hall.
- Kang, C., 2009, Observation on the constructing practical knowledge of student teachers: A case of geography classroom organ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4), 577-603 (in Korean).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1, *Principles and Directions in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Contents of Geographic Education*, Research Papers 20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지리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와 방향, 연구자료 2001-5).
- Korea Research Group of Geographers, 1993, *Theorists in the Contemporary Geography*, Minumsa (한국지리학회, 1993, 현대 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1, *Theorists of the Spatial Paradigm* (국토연구원, 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 Kwon, Y. and Ahn, Y., 2009, *The History of Geographical Thoughts*, Hanul (권용우·안영진, 2009, 지리학사, 한울).
- Kwon, Y. and Byun, B., 2008, *Understanding Our Cities*,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권용우·변병설, 2008, 우리도시 바로알기, 국토지리학회).

- Kwon, Y., Koo J., Hwang, C., Lee, Y., Kim, M., and Lee, J., 2007, *Our National Land: Middle School Version*, Ministry of Construct and Transport, Korea Land Corporation (권용우 · 구자용 · 황철수 · 이용원 · 김민수 · 이종용, 2007, 우리 국토: 중학교용,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 Kwon, Y., Koo, J., Kim, D., Noh, H., Yu, H., Joh, Y., and Hwang C., 2007, *Our National Land: High School Version*,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권용우 · 구자용 · 김대영 · 노혜정 · 유환중 · 조영국 · 황철수, 2007, 우리 국토: 고등학교용, 국토지리학회).
- Lee, J., 2010, *Policies on the Citizens College of Urban Affairs*, CCEJ (이재준, 2010, 시민도시대학정책, 경제정의실천연합).
- Lee, T. and Kim, D. W., 2010,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5(2), 293-317 (in Korean).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Land* (국토해양부, 2009, 우리나라 바로알기에 관한 연구개발).
- Park, S., Kim, H., and Lee, E., 2009, An analysis of students' graphicacy in Korea based on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3), 410-427 (in Korean).
- Petersen, J., Sack, D., and Gabler, R. E., 2010, *Fundamentals of Physical Geography*, Brooks Cole.
- Ryu, J., 1999, *Lecture of the Geographical Education Philosophy*, Hanul (류재명, 1999, 지리교육철학 강의, 한울).
- Song, U., 2009,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Educational Science (송언근, 2009, 지리하기와 지리교육, 교육과학사).
- Taylor, B. B., 2010, *Altar in the World, An: A Geography of Faith*, HarperOne.
- <http://landlove.kr>
- 교신: 권용우,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ykwon@sungshin.ac.kr, 전화: 02-920-7142)
- Correspondence: Yongwoo Kwon,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 University, 249-1 Dongsun-dong 3ka, Sungbuk-ku, Seoul, 136-742, Korea (e-mail: ykwon@sungshin.ac.kr, phone: +82-2-920-7142)
- 최초투고일 2010. 9. 23  
수정일 2010. 12. 12  
최종접수일 2010. 12. 13